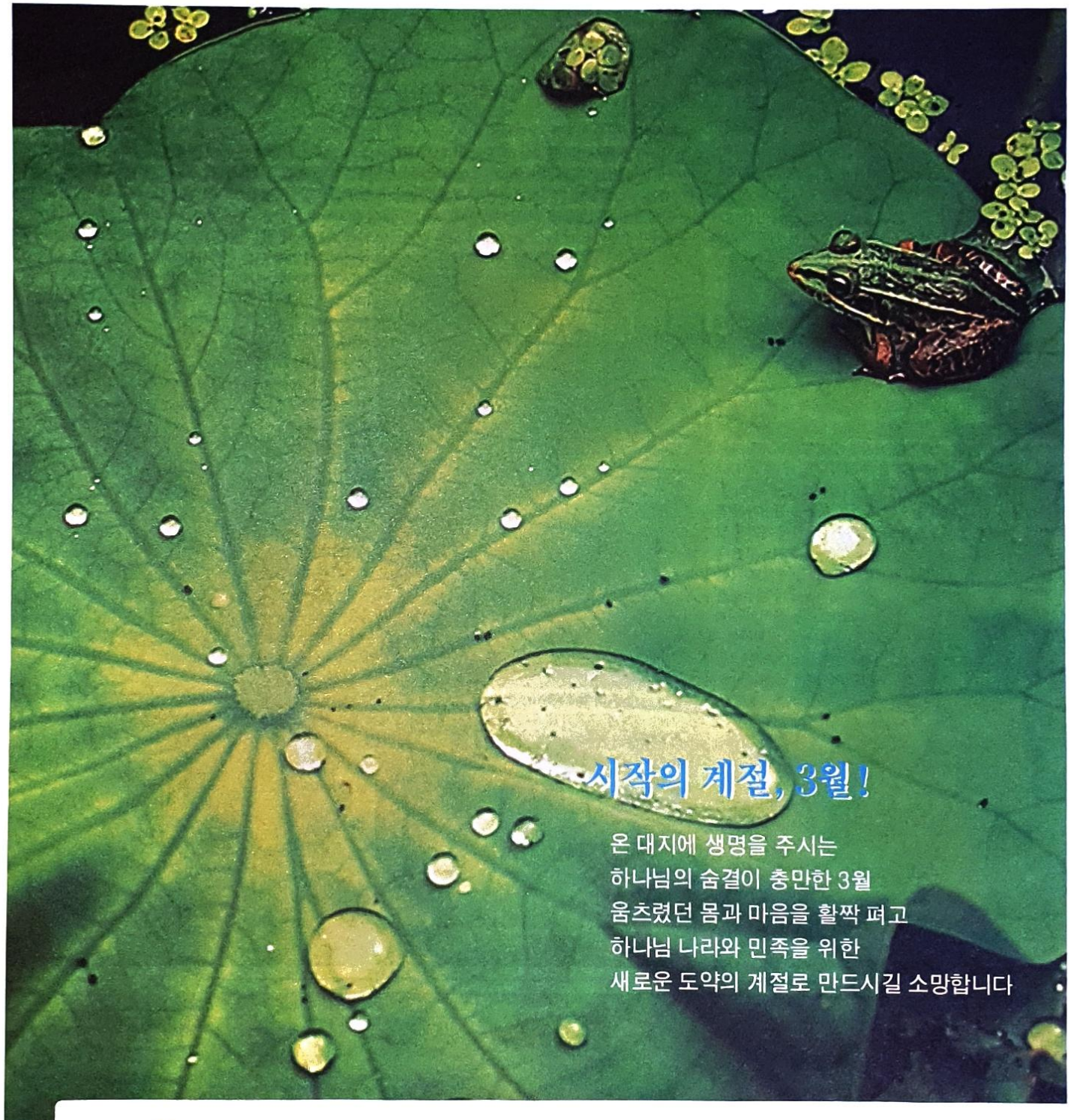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온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 행 인 : 한 균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제112호 2008년 3월



시작의 계절, 3월!

온 대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충만한 3월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절로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INDEX

2 고난과 부활의 계절
4 2008성시화!
영역별 신거로 새로운 비약을 꿈꾼다
11 행복한 가정 건축기



3 서해안
우리가 살린다



13 패션 오브
크리이스트



고난과 부활의 계절,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섬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국립현충원을 찾아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또 취임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국민을 섬기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동안 '섬기는 리더십' 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가 연거푸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으려는 표현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인지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마 18:1-4)**라고 가르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자신이 가장 높은 지위 얻기를 갈망하였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대속물' 이란 말은 「대신」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속전」이란 의미도 내포한다. 속전이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돈을 말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속전으로 치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행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데 자신을 투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야말로 섬김의 극치가 아닐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통해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광이 주어진 것이다.

한국교회, 예수님의 섬김만이 희망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의 삶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사건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는가?

이렇듯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즉,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섬김을 요구하셨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귀족적이며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누가 더 높은가 만을 생각했던 제자들과 같이 영광만을 좇기 때문은 아닐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고 헌신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좇아 세상을 섬기기보다 자기 개인과 개교회의 영광만을 추구하다보니 불신세계로부터 '개독교' 로 욕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닐까?

물론 오늘날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의 섬김이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대상의 형편과 마음을 배려함이 없이 오직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이나 교회 생색내기 차원이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돌아올 대가를 바라는 품앗이 섬김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섬김이었다.

이제 진정으로 이 사회를 변혁시켜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주님이 계셨던 자리 곧,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한국사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섬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편집위원 권 기 친]



www.seeds21.co.kr
MOS
95%의 합격률
씨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서해안 우리가 살린다 파이팅!

서해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희망의 손길!



태안앞바다의 기름유출사태는 태안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사건이었다. 한국교회가 태안주민들을 위로하고 기름으로 뒤덮은 서해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춘천지역 교회들도 태안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였다. 태안에 방문하여 봉사에 참여하였던 나눔교회(피중호), 성광교회(김광국), 소양제일교회(이주호), 춘천사랑의교회(윤대영), 장애인복지관의 봉사모습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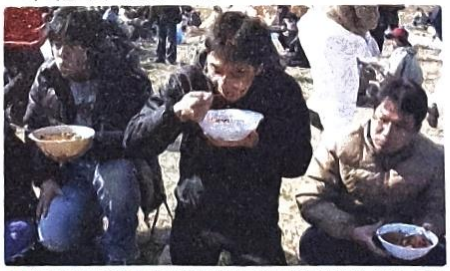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단은 2008년 1월 4일 태안군 백리포 항구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 나눔교회 봉사단은 2008년 2월 18일 태안군 원북면 의향리 두멍제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 소양제일교회 봉사단은 2008년 1월 7일 태안군 십리포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 기름제거 작업 후 따뜻한 식사가 이렇게 꿀맛일 수가. 감사가 절로 나온다.



■ 성광교회 봉사단은 1차 2007년 12월 17일 태안군 원북면 의향리 두멍재, 2차 봉사단(서면 금산교회 참여)은 12월 27일 만리포 해수욕장, 3차는 2008년 1월 28일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모제포구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 춘천사랑의교회 봉사단은 1차 2007년 12월 28일 태안 구름포, 2차 2008년 1월 25일 태안 구례포에서 기름제거 작업 후 주민가정을 방문하여 위로금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습관을 바꾸어주는 자기주도교육

-바꾸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평화 교회

다니엘 공부 세상

자기주도적 다니엘 공부세상은?

※ 학생 스스로 계획, 학습, 평가, 반성하는 학습법
※ 학습 및 생활습관을 바꾸어주는 전인교육학습법
※ on & off-line 교육을통한 전과목 지도학습법
◆ 모집대상 : 6~7세, 초등학생, 중학생(수시모집)
www.schodcity.co.kr
◆ 위 치 : 퇴계 주공1단지 정문앞

상담문의 : 1577-1225 (033) 261-8745, 010-2032-8160, 010-3379-796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선교세계관학교(MPS) 14기 안내

■ 오리엔테이션 : 2008. 3. 15. 오후 3:00~6:00
■ 강 의 : 2008. 3. 22. ~ 5. 10. (8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3:00~8:00
■ 장 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 문 의 : ☎253-3399, FAX 253-3399, H.P. 010-4116-5373, 011-363-0926 / www.mpscc.net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 유일한 가치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선교세계관학교(MPS)는 보내는 선교사 또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이다. 2·3세계 선교,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를 향한 사역, 세계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 10/40창, 전략적 동역관계 등의 비전과 전략들이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품은 World Christian 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2008년 춘천성시화!

"영역별 선교로 새로운 비약을 꿈꾼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영역분과별 선교전략을 살펴보다 II

참여자 : 김성호(상임총무), 김원중(이단), 김종호(선교), 이주호(복지), 조영호(정치,경제)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지난호에 이어]

지난 2007년은 성시화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 2007년 9월 6일(목), 7일(금) 성시선교대회 중에 개최되었던 성시화를 위한 영역별 성시세미나와 포럼은 춘천지역의 영역별 선교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춘천성시화는 영혼구원과 사회선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별 복음화를 통한 총체적 사회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일터에서 새로운 하나님나라의 문화변혁을 이루어나갈 때 춘천성시화는 완성될 것이다. 춘천성시화를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끌어나갈 춘천기독교연합회 영역분과위원회. 이들은 2008년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성호(상임총무), 조영호(정치,경제), 김종호(선교), 김원중(이단), 이주호(복지). 영역과 연합, 정치와 경제, 선교와 이단 그리고 복지를 4개 분과의 비전을 들어보자.

21세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세계선교라고 생각한다. 춘천기독교연합회도 춘천의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해의 비전은 무엇인가?



김 종 호 목사(선교위원장)

긍정적 생각으로 선교사명 감당해야 한다.

작년에 시니어선교한국대회에 참여하였다가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만났다. 인터콥에서 진행하는 비전스쿨을 소개받아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한 비전스쿨을 통해 전교인들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돈도 없으며 거기에 다 빚까지 있는데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선교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확신하면 작은 교회도 적은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좌우명이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 보자!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선교는 나누는 것이다. 나누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을 포기하고 절약해야 한다. 작은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만 바라보면 안된다.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자비로 헌신할 결단을 해야 한다. 춘천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 발로 우리 곁에 온 미전도종족들이다. 우리 교회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돕고 있다. 현재 중국 예배부를 신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성탄절에는 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도록 인도하셨다.

춘천의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터콥에서 실시하는 비전스쿨 3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 이일에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 성 호 목사(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선교는 시작 된다



선교 안하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체질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를 안해 보면 돈이 많고 사람이 있어도 선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오래전 경험이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받기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된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작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주어진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할 있는 선교마인드형성을 위한 선교프로그램이나 단기선교프로그램, 더 나아가 긴급한 제난 시 힘을 모아 섬길 수 있는 기독교연합봉사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춘천성시화운동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정치, 경제이다. 춘천의 정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영역을 성시화운동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략적 방안이 있는가?



조 영 호 목사(정치경제위원장)

정치 경제 분야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정치, 경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단어이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성시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위원장으로서 고민을 해보지만 솔직한 심정은 막연하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정치, 경제 분야를 접근해야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정치,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할 수 있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춘 천 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 2007 춘천선교대회 기아체험 난민돕기 걷기대회

비 전 스 쿨 (Vision School)
일 시 : 3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2주간)
장 소 : 광염교회
주 최 : 기독교연합회 선교위원회, CCF
대 상 :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회 비 : 70,000원
문 의 : 011-363-4791

으나, 그 모임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성시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매번 관심그룹을 만든다고 그럼만 그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기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목표설정도 중요할 것이다.

▌김 종 호 목사 (선교위원장)
기장 최소의 단위부터 시작하자

조영호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정치, 경제 분야는 목회자가 주로 간여하는 특별은총의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은총과 관련된 영역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일반시민들에까지 확대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다. 은사와 관심 그리고 비전과 열정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중에 이단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 평양대부흥 10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한해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문제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다. 춘천지역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혜로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김 원 중 목사 (이단위원장)
이단문제는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시대의 이단들"이란 책을 출판했다. 대전지역에서 몇몇 교회가 이단문제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를 기독교연합회차원에서 대응하여 처리하였다. 이단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되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이단문제에 있어서 교회간의 네트워크가 시급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기독교연합회 이단위원회에서는 이단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4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구성이다. 둘째는 인적네트워크에서 공유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자체적으로 이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이단대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단들의 최근동향을 세밀히 파악 고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일은 몇 사람 혹은 몇몇 교회의 힘으로 될 수 없다. 연합회 차원에서 춘천의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복지분야는 중요하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각 영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주 호 목사 (복지위원장)
다양한 복지단체의 연합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2007년에 기독교연합회는 월드비전과 함께 "난민돕기걷기대회"를 비교적 성공리에 치러 냈다. 무엇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월드비전의 행사진행의 경험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당하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사장시켜서는 안 될 소중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2008년 기독교연합회 복지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춘천지역의 각 복지단체들을 좀 더 긴밀한 관계망으로 묶어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2단계로 2007년 "난민돕기걷기대회"의 연장선에서 좀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특별히 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분류작업을 거쳐 각 행사들을 연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행사자체의 규모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성 호 목사 (상임총무)
각 분과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계획과 실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기독교연합회 임원 임기가 1년이라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영역 위원들의 임기는 3년제로 만들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 상임총무와 총괄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였다. 앞서 조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목양에 전념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관련된 일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 속에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연합회 사업은 말만 무성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소홀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와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연합회가 솔선하여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효과적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상임총무로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각 영역들이 성취해야 할 현실 가능한 목표를 한두 개 설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금조성이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올 한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 2기 성시아카데미 개강 예정

- 일 시 : 4월 7일 ~ 6월 23일 매주 월요일 저녁7시 10주간
- 주 제 : 성시화와 북한선교
- 대 상 : 관심 있는 모든 분
- 회 비 : 7만원
- 강사(예정) : 지역별 성시운동책임자 및 통일,북한선교전문가 (전청와대 배기찬비서관, 벤토레이신부 등)
- 주 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아카데미 (원장 피종호 목사, 부원장 황병호 장로)
- 문 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1

※ 제기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스텝으로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북한 나무심기를 위한 북한화가 그림전시회 후원고회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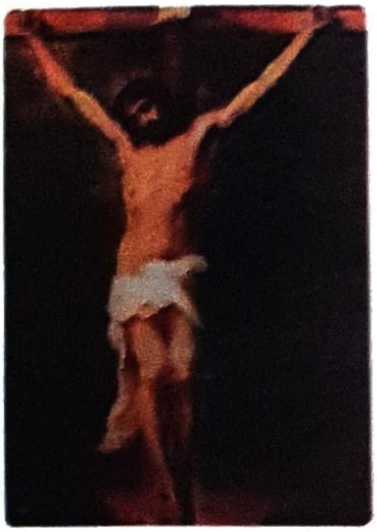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통일한국의 국토를 푸르게 합니다.
※1구좌(나무 한그루) 1,000원

■ 북한 그림전시회 예정
- 제1차 3월 2일(주일) 사랑의교회 (☎241-8017)
- 제2차 3월 9일(주일) 중부교회 (☎252-3556)
- 제3차 3월 16일(주일) 나눔교회 (☎251-9191)
- 제4차 3월 23일(주일) 주향교회 (☎256-3927)
- 제5차 3월 30일(주일) 은혜교회 (☎241-4315)

※4월에 전시할 교회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 성시본부 256-1260~1 기독교연합회 통일분과위원회 010-2030-815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사순절(四旬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 간의 기간이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인내, 준비와 변화를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공생애를 시작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도 40일이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 신분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그 이후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명자로 나선다. 시내 산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지낸 기간도 40년이었다.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이어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은 A.D.325년 니케아 회의에서였다.

처음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금식의 기간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켜진 아름다운 전통이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의 식사만을 하는 가정들이 많았으며 기록에 의하면 생선과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절제하였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금식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15세기 이후에는 금식보다는 연극, 무용, 연애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만을 절제하였다. 하지만 현대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켜진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함이 필요하며 가족끼리 금식할 경우에는 형식에 매이지 말고 건강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3일 금식이나 매일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을 결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집중기도의 기간

그동안 작정기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수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집중기도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다. 교회적으로 사순절 특별기도회를 여는 교회들은 형제와 자매들을 독려하여 기도의 기간으로 삼도록 한다. 교회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운 주변사람들과 기도그룹을 만들어 집중기도의 기간으로 삼자. 남춘천순복음교회(담임목사:오의석)는 이 기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새벽5시와 저녁8시 1,2부로 가진다. 아마 춘천 내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새벽기도회로 40일을 채우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40일이 아닌 단 며칠이라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혼구원의 기간

이 기간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구제와 섬김의 사역도 강조하셨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닫힌 마음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기도하며 다가서 보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부부사이에, 공부하느라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제자들 사이에도 먼저 다가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 영혼구원이 필요한 이웃과 친구들의 명단을 놓고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여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유동선)를 비롯한 춘천 시내의 여러 교회들이 이 기간 중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하여 형제자매들의 성령 충만을 고취시키고, 영혼구원을 향한 대 추수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들이다.

절제와 나눔의 기간

수세기 동안 사순절 전통은 엄격한 규율로 음식 등을 절제하며 내려왔지만 시간이 흘러 행위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의식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절제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또는 가족들과 함께 협력하며 절제의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좋다. TV나 컴퓨터 사용을 멀리하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유흥을 위한 여행은 이 기간에는 삼가도록 한다. 춘천 나눔교회(담임목사:피종호)와 성광교회(담임목사:김광국)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은 이 기간에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한국 교회봉사단의 일원으로 충남 태안을 방문하고 기름제거 활동에 나섰다. 춘천의 S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거두리를 아름답게' 라는 슬로우건으로 교회 인근지역 대청소에 나서고 있다.

[편집부]

어르신의료요양시설
무지개동산
편안한 안식처!
무지개동산에서 황혼을 보내세요~
※ 무지개동산에서 황혼을 보내실 어르신 부부나 홀로 계신 분을 위하여 모든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 요양시설로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이곳에 오셔서 편안한 보금자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며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중풍, 치매 등 기타 중증질환)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033)241-7660 · 242-7660 · 011-367-6907
■ 어르신의료요양시설 무지개동산 원장 김혜순 담임목사 이은준

| 영혼의 양식

고난 속의 침묵

이사야 53장:4~9절



이은준 목사 (동신순복음교회)

2004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는 4주간 전미 박스 오피스 1위, 국내 2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던 화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12시간 동안의 수난과정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으며, 리얼리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화 속 모든 대사를 그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와 라틴어로 처리했고, 철저한 시대고증을 통해 1세기 예루살렘의 풍경을 그대로 되살려 냈습니다. 주연배우 짐 카비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채찍과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사형 확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릴 때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하고 그 환란을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그 고통 속에서도 침묵 하셨습니다. 바로 보잘것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사53:7-8)"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므로 잡아다가 가야바의 공정이나 빌라도의 법정이나 헤롯왕 앞에 세우고 그를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셨는지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태도입니다(막14:60-62).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말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억울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막15:1-5).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역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셋째,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눅23:8-9).

예수께서 헤롯에게 심문받을 때 침묵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론이나 변명을 하여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아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샬롬!!

| 독자 투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사윤희 권사 (남부제일감리교회)

1월, 어느 토요일에 남편의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를 할 것 같아 남편은 '금식'을 해야 했지만, 저는 그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뢰하고도 싶고 남편은 굶는데 저만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다른 의미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 병원과 한의원 두 군데를 가고 싶은데 감등에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승진발령으로 감등에 온지 보름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의료원을 가야하나요? 춘천의 경우 토요일엔 진료를 안 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럼 며칠 전에 길가에서 본 그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등 ….' 잠시 후, 남편이 '국가유공자 자녀'이니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병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춘천에 계신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유공자 번호를 받아적고, 보훈청에 전화해 위탁병원을 알았지요. 그 병원은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 진료를 할까 의아한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진료를 하고 담당 전문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두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처방전을 들고 근처의 약국으로 갔습니다. 마침 따끈한 쌍화탕 한 병을 주는데 그만 제가 마실 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마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무척 추운데다 배가 고파서 따뜻한 쌍화탕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이 들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11시 30분,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할머니께 여쭤보니 우리 집 쪽으로 한참을 내려와야 한답니다. 그런데 도착시간이면 점심시간일 것 같아 잠을 보고 식사 후에 한의원에 가자했지요. 그래서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시장 앞 상가건물에 한의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셨죠. 그 한의원은 깨끗하고 넓은데 손님도 많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 한의원 잘해요?"라고 물어보니 잘한다는 소문 듣고 왔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침을 맞는 동안 한의원 내 책꽂이에 꽂혀있는 '북어국'이란 정감 있는 제목의 수필집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작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한 전직 서울의 국립대 교수이자 박사. 그런데 그녀는 정치부 기자인 남편의 '자살'로 좌절하다가, 겸손을 배우게 했고 공부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위기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두 군데나 좋은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고 덤국엔 좋은 책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책 중의 한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서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깊어지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완성된다.'

개성강한 남편과 살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삶의 훈련조교라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제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성숙되어갑니다. 아울러 이번에 남편과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부는 더 친밀해졌고,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첨부)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2008 신종 국가자격제도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안내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중증 노인복지법상 만려인 기정 시설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지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원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기사 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국가자격제도 신설 인력입니다.

왜? 강원요양보호사 교육원인가?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수업환경, 최고의 실습연계 교육, 취업알선상담지원, 넓은 주차장

등록기간 : 2008년 2월 4일(월)부터 수시등록가능

접수장소 및 방법 : 강원요양보호사 교육원 교학처(춘천시 동면 월곡리) / 방문접수(선착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매(소정양식-접수처비치), 주민등록등본 1매, 반명함판 사진 3매
- 경력증명서(소정양식-접수처비치, 경력기관 확인서류 교참-경력자에 한함)
- 국가자격증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수강료납부방법 : 계좌이체(농협 301059-52-086379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현금·카드가능

장학금제도운영 : 교육원운영규정에 따라 선정

문 의 처 : 교육원 교학처 033)241-2660, 242-7664 교육상담 011-668-8137

(강원도 교육기관인가 제2호)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장 이 은 준 목사

모집분야		모집인원	수료시간	개강예정일	수강료	비 고
요양보호사 1급	신규	40	240	1기)08.218(월)마감 2기)08.324(월)	55만원	주간(종일반)
	경력자	40	140(120)	1기)08.310(월) 2기)08.512(월)	40만원 (35만원)	야간 (18:00~22:00)
	국가자격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40	50(40)	1기)08.216(토)마감 2기)08.329(토)	20만원	주간(토요일만)
요양보호사 2급	신규	40	120	08.4.14(월)	30만원	야간 (18:00~22:00)

※ 신규1급자도 야간반에서 경력1급자도 주간반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교학처 상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추천하는 자 (고후10:18)

바울은 밀레투스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냈는지를 말한다(행20:17-35).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심재식 목사를 만나게 하셨다(요일2:6).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벧전1:17), 종종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실수를 범한다(삼상16:6-7).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복으로 우리를 맞는 심 목사. 평범한 시골농사꾼처럼 보였다. 그러나 심재식 목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심 재 식 원로목사(신창동교회) 편입니다

선교 농장

2002년 목회를 은퇴하면서 계속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사들인 6,300평의 농원의 나무들을 돌보며 쉴새 없이 일하고 있는 심 목사. 3월 31일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1년에 두 차례 아프리카선교). 농원의 일 년 수익이 4-5천만 원. 그 수입을 전부 선교를 위해 쓰고 계신다. 목회를 은퇴하셨지만 은퇴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열정과 건강은 흡사 갈렙과 같았다(수14:10-12, 현재 77세).

주님과의 만남

심 목사는 아버지가 북한군에 죽게 되자 19살에 빨치산을 토벌하고자 자원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의 고산읍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에 감동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하게 된다. 그 후, 한 동안 서원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위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서원이 떠올랐다. 주변 환경을 정리한 후 72년 신학대학원에 입학. 17년간 서리집사로 섬기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던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성경을 한 번은 읽고 들어가자는 마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콧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였고,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듯 인도하심이 신묘하다할 뿐이다(요3:8; 롬2:4).





교회 개척

75년 신학교졸업을 하면서 셋집 12평에 집의 마루 4평에서 창동남교회(이후 신창동교회로 이름을 바꿈)를 개척.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할 때 전도대상자가 "안 믿겠다"고 하면 "왜 안 믿느냐?"라고 싸우다시피 강하게 전도하였단다. 심 목사의 구령(영혼구원)의 열정에 하나님도 감동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당시 경기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였다.

선교의 열정

선교를 위한 심 목사의 열정과 충성 그리고 헌신의 열매들을 다 소개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그는 필리핀 안티폴로에 있는 한국 아카데미(선교사 자녀 학교, 한국 교육부 허가 1호)가 어려움을 겪자 학교를 세우고자 1년에 20번 이상 넘나들며 학교를 세운다. 이것을 필두로 하여 필리핀 장로교신학교 후원 이사장,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센터분과 이사장, 케냐-출애굽선교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K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희생적 열정으로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 은퇴 후에는 아프리카영육구휼선교회를 도우면서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청빈 선언

그러던 중 심 목사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났다. 95년 동료 목사 가운데 한 분이 대학가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노회, 총회, 부흥회, 선교 일로 잊고 있었던 축호, 노방 전도를 위해 모 전도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때 한 집사가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전도하는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심 목사에게 큰 도전과 함께 결단을 하게 하였다. 그는 교회로 돌아와 전도와 청빈을 선언하였다. 그 실천으로 첫 번째, 교회에서 사준 고급 승용차를 경차(티코)를 바꾸고, 두 번째, 사례금은 교회에 전액 특별헌금으로, 세 번째는 통장의 모든 돈과 집 안에 있는 보석류를 주님께 드렸다.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이 기독신문에 기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기사가 나가자 그동안 전국 교회에서 300여 차례 부흥회를 해왔던 그에게 한 차례의 부흥회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그의 청빈 선언에 부담을 느낀 목회자들이 꺼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은퇴까지 변하지 않았다. 최근 MBC '뉴스 후'의 보도로 조국 교회가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심 목사는 말한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원하든 원치 안든 청빈생활을 하고 있다.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절제와 검소를 결단하는 것조차 사실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우리 주님은 자기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심 목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설령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꺼이 가진 것을 소비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소비하리라."(고후12:15) 심 목사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모두 이렇게 살고 있다(2남 2녀, 목사, 남아공선교사, 필리핀선교사, 전자오르간 은사로 봉사). 한쪽 구석에서 3시간이 넘게 듣고 있던 사모가 입을 열었다. '우리도 몸을 입고 있기에 세상 것을 이용하지만 욕심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의롭기에 묵묵히 따라 왔다'는 것이다. 믿음의 아내와 함께(고전9:5) 생명을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는(벧전3:7) 산골의 부부가 참 아름다웠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은 신실하다, 온전히 믿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기쁨을 얻어 돌아왔다. 나와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해 본다.

[진행 정재호,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김주환 목사님의
강원기독교연합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강원기독교연합회 회장 취임 축하예배

▌일 시 : 3월 5일(수) 오후 7시
▌장 소 :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축하합니다



1993년 개원당시 원장 이관현

제15회 자연유치원 졸업식을
축하드리며
2008학년도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자연유치원운영발전위원회
www.cyworld.com/jysince93

우리 곁에 있는 山
가 리 산



입춤의 조망

소양댐에서 동쪽을 보면 저 멀리에 두 개의 우뚝 솟은 암봉이 보이는데(실제는 3개), '가리산'이다. 가리산은 춘천시 북산면, 동면과 홍천군 두촌면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리산의 모습은 소양호와 어울려 알프스의 그 유명한 마터호른산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안의 마이산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상의 암릉을 보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가리산의 높이는 1,051m이고 능선은 완만한 편이나, 정상 일대는 좁은 협곡을 사이에 둔 3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망이 뛰어나 소양호를 비롯하여 북쪽으로 향로봉에서 설악산을 거쳐 오대산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백두대간 등 강원 내륙의 고산준령이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강원 제 1의 전망대라고 한다. 이는 가리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보면 실감할 수 있는 말이다. 또한 그 말은 많은 곳에서 가리산 정상을 목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리산이란 이름은?



산 이름인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땔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고깔 모양으로 생긴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리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경기도 포천에도 있고, 설악산 장수대 남쪽에도 가리산이 있다. 모두 두 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리'는 '갈'에 뿌리한 이름이고 '갈'은 '가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작은 냇줄기 또는 '냇줄기가 갈라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 가리산은 북쪽으로 소양강과 남쪽으로 홍천강에 이어지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



등산로

코스 1 : 소양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물노리로 접근하여 오를 수 있다. 뱃터 – 양지말 – 은주사 – 뱃터갈림길 – 가리산(왕복 13km, 6시간)

※ 소양호 선착장에서 물노리행은 1일 2회이고 오전 8시 30분과 오후 3시에 출발한다.

코스 2 : 광산골 초입 – 임도끝 – 910봉 – 가리산 – 암자 – 품걸2리 (8.1km, 5시간)

※ 이 코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코스 3 : 가리산 휴양림 – 함수곡 – 가삽고개 – 가리산 정상(2봉,3봉,1봉) – 남능선 무쇠말재 – 함수곡 – 휴양림 관리소 (7.2km, 4시간소요)

※ 요즘은 홍천군에서 천현리에 휴양림을 설치, 그곳에서 많은 등산객이 산행을 시작하고 있다. 가장 보편화된 코스이다.

가리산의 매력

1. 강원 제 1의 전망대

탁 트인 전망이야말로 가리산의 매력이다. 사방으로 막힘이 없다.



▲ 동쪽(설악산방향)으로 뻗은능선



▲ 서쪽(춘천방향)으로뻗은 능선



▲ 남쪽(홍천방향)으로 뻗은능선



▲북쪽으로 본 산방. 소방호기 보인다

2. 편안한 산행



홍천쪽 휴양림으로부터 산행을 시작하면 정상부근 암릉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코스가 이어진다. 가족단위의 산행에도 무리가 없다.

3. 암릉의 정상



▲2008. 2. 4. 정상에서

가리산은 멀리서 보면 2개의 거대한 바위로 보이지만 실제 정상부근은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 봉우리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평탄한 길이 정상부근에 이르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봉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른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계단과 쇠파이프를 설치해 놓았다. 또한 3개의 봉우리 자체도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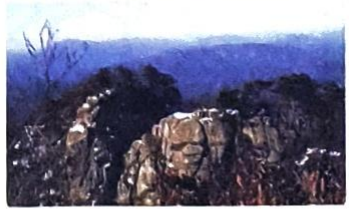
[편집위원 고 재 만]



▶ 1봉



▶ 2봉



▶ 3봉

자연유치원은 귀한 자녀의 첫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SINCE 1993
JAYEONKINDERGARTEN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신입 원아모집

* 입학연령 : 2002. 3. 1~ 2005. 2. 29
* 문 의 : www.cyworld.com/jysince93
☎ 241-5511 / 5522
jysince9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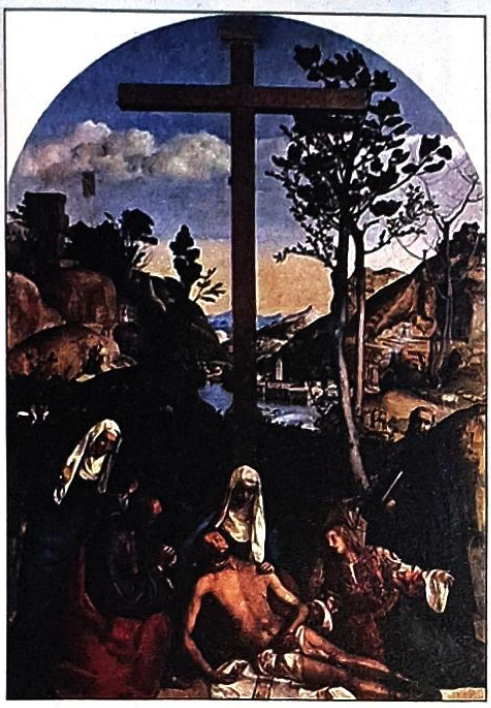


원장 이관형
1993년 은광유치원개원
(현, 자연유치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미술치료사, 독서지료사,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사, 유아체육지도자, 스피치지도자

(부설)인성미술치료진단연구소/ 신바람길거리웅변교육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림
조반니 벨리니 作 캔버스에 유화, Italy, 1515년.

위 그림은 못 박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다한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슬퍼하는 인물들의 표정, 그리고 침통한 분위기를 잘 묘사하였다. 처리한 색감과 원근법은 마치 화폭 안의 인물들과 함께 실제 공간에 지금 함께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등장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그 뒤의 배경과 하늘로 확장되며 이 장면의 전체적인 느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조화는 모든 예술의 목표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빛과 같은 계열의 색채, 그리고 균일한 밀도로 통일함으로써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신비로운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조반니 벨리니는 인간성이 깃든 자연의 내면과 신의 성정이 깃든 자연의 웅장함을 함께 보여주며, 그 자연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신과 인간의 통일성과 빛과 색채, 밀도의 조화에는 그의 독특한 정서적 온기가 스며있음을 엿볼 수 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나도 가능할 수 있을까

2008년 전(前)
골고다의 검붉었던
죽음의 언덕 길
죄의 군상에 휩쓸려
사망의 늪지대를 걸었던
부활의 언약

주께 말기나이다!
한 올 같은 외침으로
세상 권능 위로
흘렸던 피 한 방울
하늘과 장막이 요동쳤던
아름다운 사실

나도 가능할 수 있을까
한 치 육신과의 동행
개살구 가지 마냥
흘렸던 땀 한 방울
헛것의 세상살이
오늘을 사는 우리

나도 가능할 수 있을까
욕된 것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 길
서울살이 춘천살이
가는 길 오는 길마다

나도 가능할 수 있을까

詩 / 김 장 기(Chesskim, 춘천한길교회)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피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 석 연
(가정의학과)

"요즘 피로한데 왜 그래요?" "배가 살살 아픈데 왜 그래요?" "어지러운데 왜 그래요?"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참 당황스럽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어떻게 아프신데요?"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투덜거린다. 진료실에서는 여러 가지 최신의 진료 도구들을 사용해가며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면서 의사인체 뽐내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익숙한 진료 도구들이 없어서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감을 잡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피로감' 이다. 피로라는 것은 특별한 병의 특별한 증상이 아니라 어떤 병에 걸리든 동반되는 증상이라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는 거의 모든 병을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모든 병을 생각하면서 환자를 본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는가? 물론 노인들이 피로를 호소할 때는 암을 주로 생각하고, 여성이 피로를 호소할 때는 갑상선 질환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피로의 가장 많은 원인이 갑자기 늘어난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다짜고짜 암 검사를 권하거나 갑상선 검사를 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만성피로증후군 자가진단' 이라는 글을 보았다. 열 가지 정도의 증상을 나열한 후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이 병을 극복하는 법이 간단하게 소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은 보통 아무런 몸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붙이게 되는데,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암 검사와 피로를 동반할 수 있는 모든 병에 대한 검사(예를 들면 류마티스, 루푸스 등등)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만성피로증후군의 자가진단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일토당토하지 않단 말인가?

며칠 전 70세 여자 환자가 다녀갔다. 오랜만에 와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더니, 수개월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항암치료 중이라고 했다. 깜짝 놀라서 이전 챠트를 살펴봤더니 대장암 발견 직전에 다녀간 기록이 있었다. 심한 피로감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나이 많은 환자가 피로감을 호소할 경우에는 암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 환자의 챠트에는 암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아마도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다행히 늦지 않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암을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씁쓸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다. 특별히 웹빙 붐을 타고 여러 가지 의학지식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피로감이 심하거나 피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자세한 문진을 비롯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피로는 단순하지 않다.

행복한 가정 건축가

봄이 오는 3월에는 수많은 남녀 쌍들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아마도 살집과 혼수품을 준비하는 데는 여념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세워진 가정이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든 행복한 가정의 건축가가 되기를 부탁하고 싶다. 집을 짓는 건축자의 심정으로 기초부터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데이트 중에 있는 결혼 전 커플들, 약혼한 커플들, 단꿈에 젖어 있는 신혼부부들, 임신한 부부들, 유아를 키우는 부부들, 40대 이후의 중년부부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재혼한 부부들 등등 다양한 결혼의 단계에 있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의 건축가로서 한 걸음을 내딛어 봄이 어떨까 싶다.



여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 심리적, 직업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으면, 결혼은 내재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혼란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남녀는 어떻게 다른가? 남성은 성취에, 여성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결혼 전에는 서로 비위를 맞추며 구애한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 구애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남자는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향해 나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 배우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동기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므로 배우자가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결혼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를 좁히고 많은 보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결혼의 성패는 남녀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간 차이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부부의 불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모든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귀히 여김을 받고, 이해받으며, 존경받는 것이다.

① **아내는 귀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내는 자기가 당신의 삶에서 제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싶어 한다. 남편들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사랑해", "보고 싶어서 전화 했어", "나에게 일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등의 말이 아내들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② **아내는 이해받고 싶어 한다.**
여자에게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을 확인해주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남편들은 경청하기보다는 강의하려고 한다. 아내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귀로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의 포옹이나 사랑어린 말을 해주는 것이다.

③ **아내는 존경받을 필요가 있다.**
여자들은 존경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자아감각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내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아내의 자존감과 안정감을 높여주라. 또한 아내를 존경한다는 것은 아내의 꿈과 소원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3) 모든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결혼생활에서 남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자율성을 누리고,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① **남편은 칭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칭찬받으려는 것은 남자의 일차적 욕구이다. 그는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그의 가치를 측정하며 그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비판의 말 한마디가 남자의 개인적인 힘을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② **남편은 자율성을 누릴 필요가 있다.**
어떤 주부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루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다. 그들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우기 위해 신문을 보거나 잔디에 물을 주길 원한다. 이것은 남자의 세계이다. 남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당신이 더 행복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③ **남편은 활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남자는 친밀감을 어떤 활동을 함께 함으로 추구한다. 자동차 세차를 같이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등산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 가까움을 느끼게 한다. 여러분은 어린시절 운동회 때 이인삼각 경기를 기억할 것이다. 서로의 양쪽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고 빠르게 반환점을 돌아와야 했다. 처음 연습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나 운동회 날에는 혼자 달리는 것만큼이나 빨리 달릴 수 있었다.

결혼에서 남녀의 차이는 아마도 이인삼각 경기와 비슷하다. 때때로 차라리 혼자 달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의견 차이는 전적으로 정상적이다. 사실, 좋은 것이다. 결혼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함께 문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은 갈등을 빚거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상대방을 자신의 사고방식에 맞추려하지 말고 오히려 배우자의 다른 점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차이점은 풍성함이 된다.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정체되어 있고 굳어있던 결혼은 새롭고 황홀한 수평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편집위원 최영 조]

예 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전남에 사는 한 농부가 "장수풍뎅이"를 사육해서 매월 2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40대 농부는 몇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해마다 5만여 쌍의 곤충을 팔고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나 반딧불 잡은 것들은 자신에 넘칠 만큼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과거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희귀하게 된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 성경에는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삼상3:1)고 했다. 현대도 마찬가지다. 성경책은 화려해지고 종류는 많아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희귀하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편집위원 최상도]

목회자 설교 세미나

◆일 시 : 3월 6일(목) ~ 7일(금) 오후 2시~5시
◆장 소 : 주안교회
◆강 사 : 김은동목사(달라스 성광교회)
◆문 의 : 이병철목사(017-254-3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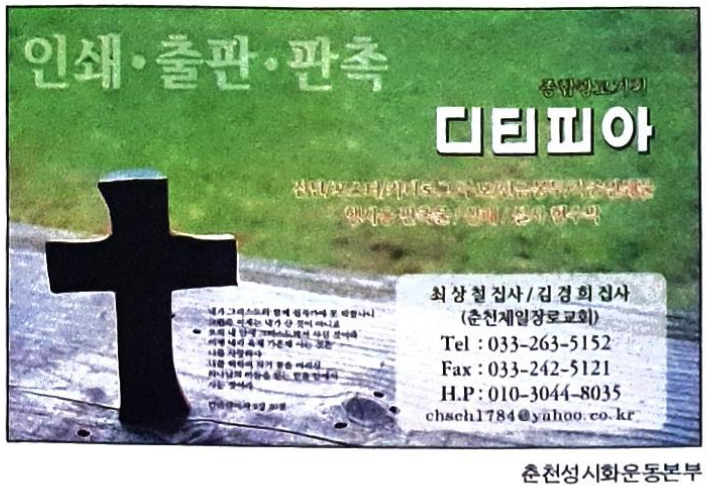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그가 피흘리심은…"





봄내호스피스 기쁨의 집



기름을 닦아내는 심정으로…

이 주 호
(봄내호스피스 대표, 소양제일교회담임목사)

일전에 교회에서 자원봉사대를 꾸려 허베이 시크리트호 기름 유출 현장을 다녀왔다. 방송으로 보고 또 들었지만 사고 현장은 참으로 막막했다. 이미 백만 명의 자원봉사대가 거쳐 갔고, 기의 노출된 기름은 제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 현장은 막막하기만 했다. 마치 모래사장의 모래를 숟가락으로 퍼 담는 심정으로 돌 하나하나를 닦아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한 결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달려들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분노가 치밀어오고, 과연 우리의 작은 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아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제 색깔을 찾아가는 돌들이 늘어나고, 기름걸레를 담은 부대가 여기저기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는 역전이 되었다.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희망을 안고 왔다.



기회가 한 순간에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가 한순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사랑을 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봄내 호스피스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주자들의 발걸음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안고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난 단 한사람만이라도 묵묵히 이 길을 가려한다면 하나님은 이 길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어린 아이처럼 현실은 그리 웃음 형편은 못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봄내호스피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봄내호스피스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봄내호스피스는 한국호스피스 협회에 소속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주사역으로 한다.

1) 말기 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본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각 가정, 병원 또는 본회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 「기쁨의 집」에서 전인적(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돌본다.
2) 호스피스 환우가 임종하였을 때 장례를 도와주고 유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4) 호스피스 정보 교환과 인식의 확충을 위해 문서 활동을 한다.

✚봄내호스피스는 이런 이유로 설립되었습니다.

봄내호스피스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봄내호스피스의 비전은 이러합니다.

1) 봄내호스피스(이하 기쁨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환우들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자.
2) 기쁨의 집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싶은 곳이 되게 하자.
3) 기쁨의 집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싶은 곳이 되게 하자.

[비전에 따른 기본정책 10계명]

1. 기쁨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환우들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2. 환우들에게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세로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3. 우리는 모든 일을 환우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4. 우리는 환우들로 하여금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우리는 환우들이 혼자 있도록 방치하거나 혼자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6. 우리는 환우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필요에 대해 먼저 묻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겠습니다.
7. 우리는 환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하지 않겠습니다.
8. 우리는 환우들의 태도, 종교, 신분의 차이에 따라 섬김의 질을 달리하지 않겠습니다.
9.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환우나 환우가족들과 논쟁하거나 대립하거나 갈등되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우리는 환우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더 나은 섬김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봄내호스피스는 지역교회가 참여합니다.

봄내호스피스의 사역은 어느 개인이나 한 교회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독교 사회봉사 및 선교기관이다. 모든 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환자 돌봄, 의료봉사, 목욕, 물리치료, 영적 케어, 애배, 환자말벗, 청소주방도우미, 사무도우미, 차량운행, 체조 가꾸기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면 가능하다. 작은 섬김으로 큰 사랑을 안겨줄 교회와 성도님들의 참여를 소망해본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8-1 TEL: 033-263-5454]

이달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지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 좋은 일꾼들을 선별하여 복된 민족으로 세우는데 값지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한국을 경제강국, 선교대국으로 세워주소서

✻춘천시와 강원도를 위하여
- 경춘선 복선과 고속도로 조기완공등 지역현안들이 아름답게 풀려지게 하소서
- 4월 총선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훌륭한 일꾼이 서게하소서
- 도지사와 춘천시장 등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소서

✻교회들을 위하여
- 모든 교회들 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며, 주의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하소서
- 이단과 헛된 우상으로 시민들을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계계가 깨어지며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소서

✻허브 성시화를 위하여
- 교회와 선교단체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허브역할을 하는 성시화운동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춘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되게 하소서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최영조
편집 위원: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디자인연구소 나무 출판 · 인쇄 · 기획
디자인 연구소 '나무'는
디자인 전문 업체로
고품질 디자인의 대중화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떠한 영역의 디자인과 스타일도 소화하며,
심미적인 만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Design NAMOO
| 시각디자인 : 심볼마크 · CI · 캐릭터 | 공간디자인 : 전시패널 · CAD |
| 현수막 제작 및 시공 | 편집 · 인쇄 : 카다록 · 리플렛 · 교재출판 · 정기간행물 | 033-251-8870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9>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The Passion of Christ)







2004년 봄 부활주일을 앞둔 사순절 새벽기도를 오가는 차 안에서 거리곳곳 문득 눈길을 끄는 포스터가 있었다.(요즘은 복합영화관 시대라 영화포스터가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몇몇 영화관이 지정벽보판에 부착시켜 놓았다.) 예수님의 약간 수그린 옆얼굴만 가득 채워진 단순한 구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뭔가 야릇한 호기심이 일어 인터넷을 열어보니 때마침 멜 깁슨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그가 이 영화를 감독 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주 화제였다. 무엇보다 그가 기독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에 의아심이 일었고, 이 영화로 그의 새로운 진면목을 만난 셈이었다. 그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는지는 몰랐었다.

멜 깁슨은 〈리셀위폰〉 시리즈 등 액션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배우이다. 1993년 〈더 페이스〉로 감독에 데뷔한 뒤, 두 번째 영화 〈브레이브 하트〉(1995)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상당한 감동으로 스코틀랜드 역사를 다룬 시대극이었다. 이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랐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하여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영화가 부활주일 전후로 개봉되자마자 선배 목사님과 둘이 첫 상영시간에 맞춰 서두른 것은 당연. 영화는 다소 이질적인 설정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를 유혹하는 사단이 여성이라는 점은 외경(外經)적이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에서 가톨릭적인 요소가 배어나온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과 고문을 받는 장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스런 느낌에 숨이 다 막혔다.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 나온 피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어느새 우리 눈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마지막 승천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인지 땀인지 투명한 방울 속에 들어간 이 세상이 서서히 표면장력으로 맺혀지는 것에서 죄 사함의 극명한 상징이 이루진 것에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12시간을 집중 조명하며 그가 겪는 "수난(passion)"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었다.

이 영화는 극사실주의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세계를 충격적 감동에 빠지게 했다. 영화사상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이처럼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는 없었다. 예수님의 고통을 관객이 직접 느끼게 하는 이 영화는 그 잔혹성으로 논란의 여지도 많았지만 올해도 다가오는 사순절에 다시 한 번 감상하며 음미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못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 참고로 예수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의 출연 당시 나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33세라는 점이 묘한 여운을 준다. 그는 진정한 신심이 아니면 연기해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 영화 이후 헐리우드의 20세기 폭스사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이미 나왔으나 신앙적 감동을 주기에는 거리가 있는 판타지이고 이미 소개한 〈네티비티 스토리〉에 이어 존 밀턴의 실낙원을 제작 중이라 하니 신실한 믿음에서 출발한 영적 감동을 주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길 소망해 본다.

[편집위원 김 춘 배]

책 소 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 저, 윤종석 역, 두란노, 2001

아직 사순절 기간이고, 곧 고난주간도 다가오는 때이다. 십자가의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묵상은 깊이 없이 그 자리에 맴돌 수 있다. 그러하기에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며 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묵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에 관련된 배경 - 군병들의 침, 기시면류관, 못, 죄패,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십자가, 갈보리 길, 벗겨진 예수님의 옷, 찢긴 몸, 포도주 적신 해융, 물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수의, 빈 무덤 등 13가지의 사건과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또한 저자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십자가를 둘러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여정에 숨은 영적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2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영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 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담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 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감리 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자연유치원	
맨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씨앗컴퓨터학원	
제시뉴욕		
김 기 태	김 은 신	김 길 홍
김 진 삼	김 현 철	김 영 영
박 동 환	신 성 균	심 인 섭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지 상 근	최 상 호	최 치 광
최 예 석	한 화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순 복	

춘천기독교연합회 회비 납부 교회(2008. 1월 이후)

광영교회	광현교회
나눔교회	늘사랑 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신애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새춘천 교회	소양제일교회
소양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온누리교회	은혜교회
원명교회	제일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사랑의장로교회	춘천장로교회
김 혜 경	이 복 규

정약용 문화센타 안내

※개 강 : 2008년 4월 7일(월) ~ 12일(토)
※모집기간 : 2008년 3월 3일(월) ~ 29일(토)
※장 소 : 정약용 문화센터(거두리 부영A앞 사랑교회4층, 261-7725, 010-4199-1899)
※회 비 : 모든 프로그램은 1만원(각 코스 8명 이하는 폐강)
※주요프로그램
고학년 어린이를 위한 논술교실 : 4~6학년대상(매주 금, 오후4-5시, 4.11개강~6.20종강) 강사/ 김효진(강원대 강사)
행복놀이터 : 엄마와 아가와 함께 6~7세반(매주 화, 오후4-5시) 4.8개강~6.17종강
엄마와 아가와 함께 3~5세반(매주 목, 오전10:30-11:30) 4.10개강~6.19종강
행복테라피 성인반(매주 금, 오전10-11시) 4.11개강~6.20종강
청년반(매주 금, 오후6-7시) 4.11개강~6.20종강, 강사/김수정(표현예술심리상담사)
크리스천 건강 요가 : 실버요가 (50대이상, 매주 월요일, 오전10-11시) 4.7개강~6.16종강
건강요가 : 여성대상, (매주 월요일, 오전11-12시) 4.7개강~6.16종강 강사/ 유경희(요가 전문강사)
종이접기 : 초등학생(매주 목, 오후4-5시) 4.10개강~9.19종강
강사/ 남궁명숙(종이접기 전문강사)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미 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나라의 존재 조건과 나라가 사는 길

박 상 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연합회 증경회장 / 전 성시본부장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창 치열했던 무렵인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자는 연설문을 작성한 바 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문 속에 나타나듯이 허물을 지적하는 이나 허물을 지적받고 있는 이나 다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속에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마7:2-5).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나 비 그리스도인이나 다 함께 남을 탓하거나 비리를 들추기 전에 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는 문화가 생성되기를 원한다.** 설교원고를 완성한 후,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설교를 한 후 그 밤에 그 설교의 내용 때문에 자책(自責)하면서 몸부림치며 통회(痛悔)하는 목사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가안보, 국가경제, 국민 정신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국민 정신력은 가장 중요하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이를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의 존재 조건이 되며,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흔한 오류는 자신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비판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의 고백과 우리 개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제 문턱에 닥아 온 봄기운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들안에 그리고 개개인의 심령 속에 따스함이 깃들기를 소원해본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주간 교사 강습회
일시: 3월 10일 ~ 5월 19일 매주 월요일 12주간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등록금: 3만원(12주간 간식, 핸드북, 특강교재 제공)
※전도용 교재가격 : 45,000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목동모임
일시: 3월 8일(토), 오후6시 장소: 예담교회
2) 악원복음화대회 준비모임
일시: 3월 매주 토요일, 오후6시~8시 장소: 미정
※악원복음화대회: 4월 12일(토),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3)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3월 22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권도근 선교사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bve
한승연간사 010-3369-699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개강채플
일시: 3월 7일(금) 장소: CCC 회관
2) 친구초청예배 - 여우사이(태권도팀 초청)
일시: 3월 20일(목) 장소: CCC 회관
3) 초급 LTC전도훈련
일시: 3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CCC 회관
문의: 254-5776
※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간사 사역협의회
일시: 3월 5일(수) ~ 6일(목) 장소: IVF 회관
2) AMP 개강
일시: 3월 15일(토) 오전10시 장소: IVF 회관
3) 대표간사협의회
일시: 3월 17일(월) ~ 21일(금) 장소: 대구 성주훈련원
4) 신입생 콘서트
일시: 3월 27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학교 구 노천극장 문의: 252-5200

◆ JDM
1) 한국제자훈련원(KDTI) 개강예배
일시: 3월 3일(월) 오후2시 장소: JDM훈련센터
2) 춘천지구 개강예배
일시: 3월 6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학교
3) 새내기 신앙강좌
일시: 3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춘천회관
4) 신입생환영회
일시: 3월 28일(금) 오후7시 장소: 미정
5) 부활축전
일시: 4월 3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3월 3일(월) 오후7시 장소: 서원 삼광교회
말씀: 윤요한 선교사
2) 워클리프스쿨
일시: 3월 18일 ~ 6월 3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운교동)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석사동 우석초교 옆)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3월 3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제이락 클럽 [http://club.cyworld.com/jlbc]
박유식 010-9368-9856, 이영규 010-2872-4727

◆ 월드비전 강원지부
1) 2008 사랑의 점심나누기
일시: 3월 1일(토) ~ 5월 31일(토) 3개월간
주최: 강원도민일보, 춘천MBC, 월드비전 강원지부, 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협의회
주관: 월드비전 강원지회연합회
후원: 강원도(18개시군), 강원도교육청, 교차로, 야후코리아
모금목표(4억5천만원-전년도모금액350,000,000원)
모금지원계획: 국외- 아프리카 잠비아에 강원도 이름으로 희망의 보건소 건축, 국내- 사랑의 도시락집 지원,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 강원도내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저소득아동 교육비 지원

◆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1)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교육
대상: 부모 및 예비부모(선착순 15명 내외)
일시: 3월 ~ 5월, 총 9회기(월주일에 한번)
교재: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I, II
장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후평1동
교육비: 50,000원
입금처: 신한 100-014-518360(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2) 아동지킴이(자원봉사자) 모집
모집분야: 멘토링,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도담인형극단, 사랑의 합창단, 공동생활가정지원, 각종 행사 및 업무보조
모집대상: 강원도내 대학생, 주부 및 일반인
모집시기: 2월 18일(월) ~ 3월 25일(금)
문의: 이성호 033) 244-1391, 1577-1391 [www.1391.org]

◆ 평화교회 다니엘 공부 세상
습관을 바꾸어주는 자기주도교육
대상: 6~7세, 초등학생, 중학생(수시모집)
www.schoolcity.co.kr
장소: 퇴계 주공1단지 정문 앞
문의: 1577-1225, 033)261-8745, 010-2032-8160, 010-3379-7962

◆ 부활절연합예배
일시: 3월 23일(주일) 새벽5시
문의: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 목회자 설교 세미나
일시: 3월 6일(목)~ 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주한교회
강사: 김은동목사(달라스 침광교회)
문의: 이병철목사(017-254-3162)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베테랑과 상담하세요.
항상,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허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한나라당 허천 국회의원은 2월 4일(월) 오후2시, 운교빌딩(운교로터리)에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재선도전 출정식을 가졌다. 허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춘천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가 결코 작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더욱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좋은 인연, 한승수 총리 지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춘천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춘천발전을 위해 쌓아온 큰 틀을 기본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춘천도약의 그림을 완성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춘천24장로회 창립 10년사



춘천지역 장로들의 신앙모임인 춘천24장로회(회장:박동해장로)는 창립10년사를 발간하고 2월 12일(화) 오후6시 웨밀리뷔페에서 "창립 10년사" 발행 감사예배를 드렸다. 국배판 140쪽에 지나온 10년의 자취와 회원별 가정의 소중한 사진, 회원의 신앙간증과 기고문, 가정예배서, 기타 성경 자료들을 게재하였으며, 총 편집은 김기태 원로장로가 담당하였다. 이날 제7대 회장으로 박영서장로(의암교회)의 취임식도 열렸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2월 13일(수) 오전11시 사랑샘 어린이집에서, 15일(금) 오전10시30분 아이쌤 놀이학교에서 도담인형극단의 "은비의 파란마음"이라는 인형극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21일(목) 오후2시 본기관 강당에서 '제15회 케이스 컨퍼런스'를 "피하대 경험이 있는 친모에 의한 방임사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동학대에서 친부모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친부모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문의 1577-1391)

3 · 1절 기념 연합예배



제89주년 기념 3 · 1절 연합예배가 2월 27일(수) 오후7시 석사교회(담임:손학균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 주최로 열렸다. 곽철영 원로목사는 "삼일운동의 현대적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나라와 민족, 교회연합과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광준춘천시장의 축사 후, 만세삼창과 애국가를 제창하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짐하였다.

부산성시화와 춘천성시화의 만남



부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정필도목사) 유임근사무국장, 성시화신문 박성은출판부장을 비롯 실무단은 2월 14일(목) 오후4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서로 교류하고 성시화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남진초대본부장, 김주환진본부장, 이학규전사무총장, 기독교연합회 김성호상임총무가 참석하여 지난 춘천성시화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고, 김주환목사는 춘천의 대표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로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또 15일(금) 오전8시 세종호텔에서 한균 성시본부장이 조찬을 베풀고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춘천성시본부 2월 정기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목사)는 2월 20일(수) 오전11시 성시사무실에서 2008년 제2회 정기임원모임을 가졌다. 이날 본부장 한균목사는 부본부장 조영춘목사, 사무총장 정재호목사, 사무차장 이주호목사와 김영명장로 사무국임원과 각 영역별 분과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하나 된 마음으로 성시화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성결교 강원서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52회 강원서지방회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소양성결교회에서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장에 대한성결교회 이대성목사가 선출되었다.

■ 춘천CBS기독교방송 11대 본부장 취임





춘천CBS방송 제11대 김세환본부장이 2008년 2월 18일(월) 부임하였고, 25일(월) 오전9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전임 김광수본부장은 CBS 본사로 영전하였다.

■ 2008 춘천찬양경연대회



춘천연합찬양선교단 제이락(J-loc)이 주최한 2008년 춘천찬양경연대회 "SEARCH PRAISE"가 2월 23일(토) 오후3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각 교회 찬양단의 활성화와 찬양단간의 교류, 찬양의 부흥을 위해 열린 본 대회는 총8개 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대상 중앙성결교회 생명수찬양단, 최우수상 동부장로교회 경배와찬양단, 우수상 CCC순라이프찬양단, 인기상 순복음제일교회 찬양단이 각각 차지하였다.

■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 창립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 창립총회 및 창립예배가 2월 24일(주일) 오후3시에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으로 이사장 김주환목사, 지부장 김성호목사, 운영위원장 김수복목사, 부운영위원장 유근창장로, 사무국장 윤대영목사, 사무차장 정재호목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날 창립예배에서 한민족복지재단 고문 김형석목사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 통일한국!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춘천지부를 통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고지를 향해 가서 깃발을 꽂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였다.

취재 · 김 미경



교·회·건·축·전·문·기·업

(주)성실아이종합건설

대표전화 | 02-533-1504

SUNGSHIL I CONSTRUCTION CO., LTD.

오늘로 부터 30년의 목표와 책임, 그에 따른 성실과 정직,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설계·인테리어·리모델링·건축시공의 각 분야별 교회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성전건축 전문기업입니다.

(주)성실아이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병 보



www.sungshil.co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8-21 탑스타빌딩 3층